

## SRT 1년 ... 광주·전남 290만 명 이용

〈수서고속철〉

항공기·버스 이용객은 급감  
유통업체 역외유출 가시화  
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 영향

수서고속철(SRT) 개통 1년 만에 광주·전남지역 이용객이 290만명을 넘어서고 비행기와 고속버스 이용객은 급감세를 보이는 등 SRT 개통 이후 호남의 교통 지도가 바뀌고 있다.

SRT 개통으로 광주와 수서 이동시간이 최단 1시간 29분으로 단축되면서 우려됐던 지역 유통업체의 역외유출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관광 등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SRT 개통 이후 지난 5일 현재 광주·전남 이용객은 290만3000명이었었다.

정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송정역은 승차 112만7000명, 하차 105만6000명으로 하루 평균 승차 3015명, 하차 2919명이 이용했다.

또 나주역은 승차 11만6000명, 하차 11만4000명이었고 목포역은 승차 24만2000명, 하차 24만8000명이었었다.

전국의 주요 역별 이용객은 수서 1220만명, 부산 551만명, 동대구 442만명, 대전 267만명, 광주송정 218만3000명, 동탄 209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SRT는 평균 10% 저렴한 운임과 10분 빠른 도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앞세워 개통 1년 만에 누적 승객 1882만명을 실어날랐다.

지역 이용객도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SRT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은 지난 3일 현재 246만명으로 집계됐다. 인천·경기 거주자가 30.24%로 가장 많고 서울 29.65%, 부산·울산·경남 15.71%, 대구경북 8.22%, 광주전남 7.26%, 대전·충남 5.71% 등을 나타냈다.

광주송정역의 경우 개통초기였던 지난 1월 하루 평균 승차객은 2300여명이었지만 지난 11월 하루 평균 승차객은 3535명으로 늘었다. 나주역도 지난 1월



수서고속철(SRT) 개통으로 지역 내 항공·고속버스 이용객이 줄어들고 역외 유출이 현실화 되는 등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7일 광주송정역에서 승객들이 SRT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하루 평균 승차 275명에서 지난 11월 379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나주의 경우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SRT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지역 대표 공항과 버스터미널 등은 SRT 개통으로 이용객이 소폭 줄어들고 있다.

광주공항은 지난해 광주~김포 노선에 2505회 운항해 26만2566명의 탑승객이 이용했지만 올 11월 현재 운항편수는 1539편으로 38.6%인 966편이 줄었다. 탑승객도 27.6%가 적은 19만167명으로 감소했다.

유스퀘어에 따르면 광주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도 노선별로 5.9~15.2% 승객이 줄었고, KTX도 구간에 따라 승객이 5~12.5% 감소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SRT 이용객이 꾸준히 늘면서 교통 수단이 다변화하고 있고, 익산역에서만 정차를 한 뒤 곧바로 수서까지 직행하는 SRT의 경우에는 1시간 29분 만에 서울에 갈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더욱 승객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푸틴, 러 선수 개인자격 출전 허용 평창 올림픽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지 않고 러시아 선수의 개인 자격 출전도 막지 않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됐다. 〈관련기사 20면〉

푸틴 대통령은 7일 러시아의 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대화 중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어떤 불행도 선언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선수들이 원할 경우 그들이 개인 자격으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전날 집행위원회에서 국가 주도로 도핑 결과를 조작한 러시아를 중징계했다. 사상 최초로 도핑 문제로 한 나라의 올림픽 출전을 봉쇄했고, 약물검사 이력에서 '깨끗한' 선수만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인 자격으로 평창 땅을 밟도록 조건을 걸었다.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는 12일 올림픽 출전 후보 선수들과 코치, 개별 종목

협회 대표 등이 참석한 '올림픽 회의'를 열고 평창올림픽 참가 최종 결정을 내린 뒤다.

러시아가 평창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지 않고 개인 자격의 출전은 허용하겠다고 결정하자 청와대도 '최악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러시아 선수의 참가를 최대한 독려하는 데 체육·외교라인을 총가동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IOC의 결정에) 놀라긴 했다"면서 "러시아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를 계속 점검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지시로 세 가지 정도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IOC 집행위원회'의 러시아 도핑 제재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선수 차원의 러시아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연남뉴스

## 안철수 호남 방문 '통합론' 정면승부

9~11일 목포·광주·전주 찾자 ... 당내 갈등 증폭 전망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론을 들고 호남을 찾는다. 통합론에 대해 당원들을 설득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통합론에 대한 호남 정치권의 비판 여론이 거센 편이어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7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대표는 오는 9~11일 2박3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 중도통합과 관련한 자신의 구상을 알리고, 이와 관련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안 대표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바른정당과의 '균열'을 수습한 데 이어 곧바로 통합론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호남을 찾음으로써 당 안팎의 장애물을 하나씩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 대표는 전날에도 반대파들의 고성과 야유를 감수하면서 평화개혁연대의 첫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안 대표는 우선 호남 방문 첫날인 9일 목포를 찾는다. 전남도당 간담회를 통해 지역 당원들과 당의 진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10일에는 목포에서 열리는 '제1회 김대중 마라톤대회'에 참석한 뒤 광주로 옮겨 지사 및 지방의원들과

토론회를 하고 외연 확장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11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사흘에 걸쳐 평화개혁연대의 주축인 박지원 전 대표(목포), 천정배 전 대표(광주), 정동영 의원(전주)의 지역구를 차례로 방문하는 셈이다. 안 대표는 이 같은 행보를 통해 호남의 반발을 무마하고 통합 추동력을 높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안 대표의 이번 호남 행보가 당내 갈등을 더 증폭시킬 것이라 전망도 있다. 당원과 지방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강력한 반발을 받고 후역 불상사라도 일어날 경우 안 대표 측과 호남 정치권 사이의 간극이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지원 전 대표는 전남 언론 인터뷰에서 안 대표의 호남 방문에 대해 "그런 무망한 (통합) 설득은 할 필요가 없다"며 냉랭하게 반응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통합을 둘러싸고 당내에 감정과 골이 깊다"며 통합 찬반 양측의 의견이 하나로 모일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 감사원장 후보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61·사진)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임명동의 표결을 통과하는 대로 4년의 임기에 들어간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경남 진해 출신이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전 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청와대가 신임 감사원장 후보로 경론과

도덕성을 모두 갖춘 인사를 찾는 데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은 만큼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새 정부에

서 임명된 첫 감사원장이 될지 주목된다.

이날 운영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에 대해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공공 부문 내 불합리한 부분을 건네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나갈 책임자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낙태죄 폐지' 뜨거운 감자 ▶6면

新팔도유람 - 충남 겨울바다 ▶18면

KIA V11 - 6번타자 안치홍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I·SEOUL·U

서울정책 연수 프로그램

### "서울의 혁신정책, 걸으며 체험한다"

# 서울혁신로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모집 기간** 2017년 12월까지 상시접수 및 상담
- 대상** 지역의 고민을 풀어나가고 싶고, 서울의 살아있는 혁신정책현장을 방문하고 싶은 누구나  
\*최소신청인원 : 15인
- 프로그램** 참가자의 관심사에 맞는 서울의 혁신정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  
-1일/1박2일/2박3일 코스별 선택 및 일정협의 가능
- 참가 신청** 공공만세 홈페이지(www.fairtravelkorea.com) 접속 후 혁신로드 게시판 신청 (신청문의 후 24시간 이내 담당자 안내예정)
- 문의처 이메일** 사회적기업(주)공감만세 innovationroad2017@gmail.com

지역 정책 사람을 잇다!

토건중심에서 사람중심 서울로!  
서울의 변화를 만든 혁신적 정책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지금 신청해주세요!

예시코스

- 청년x혁신: 청년 정책네트워크, 무중력지대, 성동구 소셜밸리
- 환경x공간재생: 서울로 7017, 마포문화비축기지, 서울 혁신파크
- 마을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은평구 물빛마을, 성대골 에너지지원 마을

주최 | 서울특별시    주관 | (주)공감만세    협력기관 | 네트워크 고리, (사)시민, (사)플루리사람들,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 시민사회단체연대의,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의